

17세 스노보드 퀸 “할머니와 쇼핑 가야죠”



13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클로이 김이 플라워세리머니 때 성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 메달리스트

클로이 김
(한국명: 김 선)
●출생 2000년 4월23일
●국적 미국
●주요 경력 및 수상
2015 동계 엑스게임 슈퍼파이프 최연소 우승
2016 동계 엑스게임 16세 이턴 3연속 우승
US 그랑프리 여자 선수 최초 1,080도 연속 회전 성공
동계 유스올림픽 하프파이프·슬로스타일 금메달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최연소 우승)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 대표 클로이 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

‘압도적 실력’ 1차 때 우승 확정...3차 땀 100점 만점에 98.25점

아버지 김종진씨 생업 접고 뒷바라지...가족 위한 금빛 연기 펼쳐

‘차원이 다른’ 연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재미교포 클로이 김(18)은 세계 정상에 오른 뒤 “배고픈 소녀”로 돌아왔다. 클로이 김은 13일 평창 휘닉스 스노파크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다”면서 “가장 먹고 싶은 건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 하와이안 피자”라며 웃었다.

이날 결선에서 그는 최종 점수 98.25점을 따내 류지아위(중국·89.75점)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여자 스노보드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차 시기의 93.75점으로 이미 3차 시기를 마치고 금메달을 확정 지은 그는 마지막 연기를 앞두고 트위터에 “아침에 샌드위치 다 안 먹은 게 후회된다. 괜히 고집부렸다. 이제야 배가 고파서 화가 난다”는 트윗을 올려 특유의 여유를 드러냈다.

그리고도 3차 시기에서 더 높은 점수로 우승을 확정지은 그는 “올림픽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4년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긴

장과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들고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장 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그는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 잘 알려진 그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올림픽에서 “금빛 연기”를 펼쳐 부모의 나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뜻깊은 경험도 했다.

클로이 김은 “아버지는 많은 걸 희생했다. 딸이 스노보드에 열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도 그만두고 따라다녀 주셔서 많이 감사하다. 오늘은 가족을 위한 경기였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오늘 할머니가 보고 기쁠 줄은 몰랐는데, 2차 시기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 할머니를 위해, 즐기실 수 있도록 연기를 하고 싶었다”며 “할머니와 쇼핑 갈 것이 기대된다”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한편 클로이 김의 금메달로 여러 기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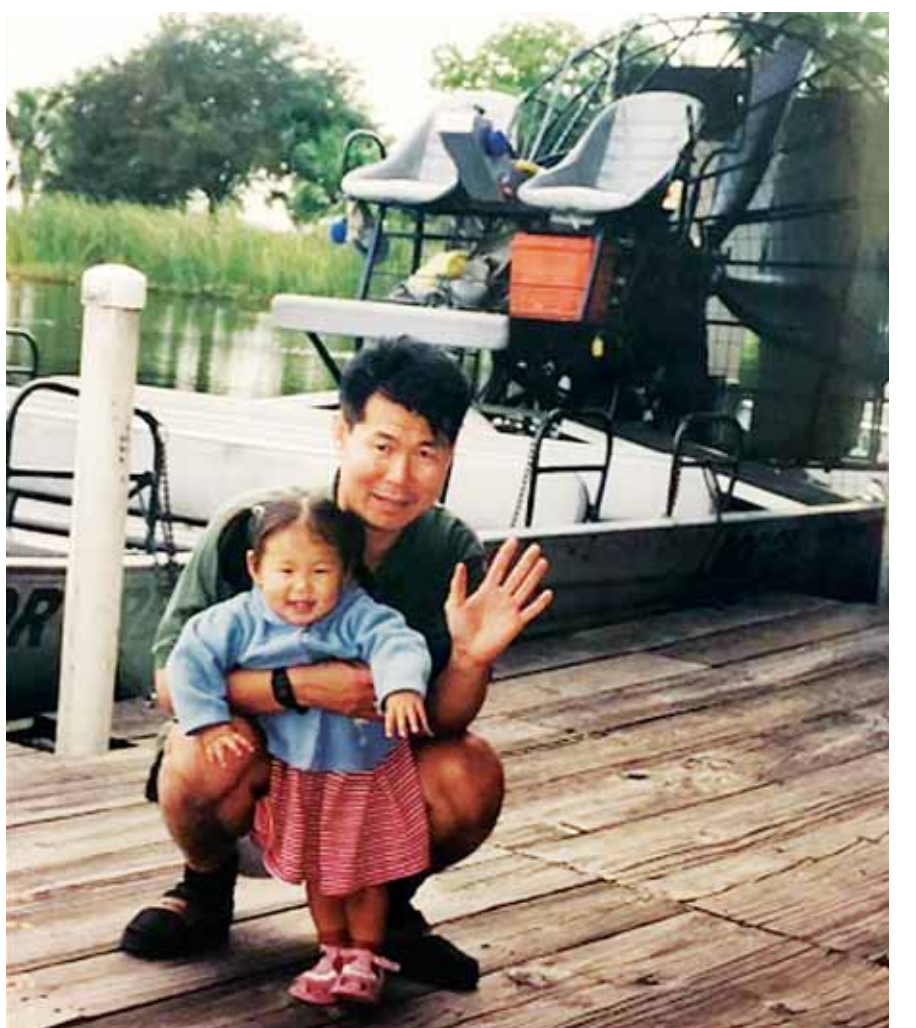
작성됐다.

2000년 4월 23일에 태어난 클로이 김은 17세 9개월에 올림픽 정상에 올라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 기록은 켈리 클라크(미국)의 18세 6개월이었다. 남녀 스노보드를 통틀어서는 11일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우승한 레드먼드 제라드(미국·2000년 6월생)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에 클로이 김은 제라드에 이어 동계 올림픽 사상 두 번째 2000년대생 금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올렸다.

점수도 남다르다. 올림픽 하프파이프에 100점 만점이 도입된 건 4년 전 소치 대회부터로 당시 여자부 금메달리스트인 케이틀린 패링턴(미국)은 91.7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클로이 김은 이날 결선 1차 시기부터 93.75점을 받아 패링턴의 기록을 가볍게 넘어섰다.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가운데 펼친 마지막 연기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25점까지 점수를 끌어 올렸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지난 2016년 아버지의 낚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아버지 김종진씨와 찍은 어린 시절 사진. /연합뉴스

전남체육회 선수들 힘 못쓰네

스노보드 김호준·이광기·권이준 결선행 불발

‘메달 기대’ 바이애슬론 프롤리나 32위 그쳐

김식 코치 맡은 봅슬레이 18일 男 2인승 메달 도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스노보드 예선 1차전에 김호준은 안정적인 연기로 54점50으로 18위를 했다.

김호준은 1, 2차로 치러진 두 차례 시가 중 높은 점수로 상위 12명을 가려 치르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김호준과 함께 출전한 이광기와 권이준은 각각 14위(75점)와 21위(62.75점)를 기록해 대한민국 출전 선수 3명 모두 결선 무대에 서지 못했다.

여자 바이애슬론의 푸른논의 한국인인 안나프롤리나는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22분56초9로 87명의 전체 참가자 중 32위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오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프롤리나는 사격에서 3발을 과녁에 맞지 못해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다.

당초 메달 예상선수로도 거론됐던 김호준은 1발을 놓칠 때마다 경기로 150m를 더 돌아야 하는 벌칙규정으로 프롤리나의 경우에는 3발을 놓쳐 450m를 더 돌아야 하는 불운을 겪었다.

프롤리나는 12일 열린 추적 10km 경

기에서도 1위로 들어온 로라 달리아(독일·30분35초3)와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5분 38초9로 뒤에 들어와 50위를 기록했다.

함께 출전한 예카테리나 압바구마도 만족할 만한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7.5km 스프린트 26분24초9로 87위를 기록해 추적경기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두 선수는 14일 예정된 15km 개인전과 17일 12km 단체출발에서 다시 한번 메달경쟁을 벌인다.

한편, 전남도체육회 소속으로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경기에 출전하는 김상겸은 오는 22일 오후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예선전을 치른다.

전남 장흥 출신이자 2014 소치올림픽에서 봅슬레이 국가대표였던 김식(34)씨가 코치를 맡아 화제인 봅슬레이는 18일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남자 2인승 예선전을 시작으로 메달권에도 도전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 피겨 연기 기다릴 가치 있음 보여주겠다”

디펜딩 챔프 日 하뉴 유즈루, 부상 딛고 17일 출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 출전하는 일본의 하뉴 유즈루가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기자회견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부상을 딛고 돌아온 일본의 ‘피겨킹’ 하뉴 유즈루(일본)는 “다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꿈의 무대에서 꿈의 연기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하뉴는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의 공식 연습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상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앞서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10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하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라고 입을 뗀 후 “부상 이후 스케이트를 탈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있었다. 마침내 올림픽 현장에 와서 메인링크에서 훈련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진 않아 안심하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디펜딩 챔피언인 하뉴는 지난해 11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NHK 트로피 대회를 앞두고 훈련 도중 쿼드러플(4회전) 러츠 점프를 뛰다 넘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했고, 그랑프리 파이널과 4대륙선수권대회 등을 포기하고 평창올림픽만 바라보며 치료와 재활에 몰두했다.

아직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하뉴는 여러 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본 선수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보다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볼 텐데 제 스케이트를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담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의 높은 기대치를 이해한다. 이를 받아들여 내 에너지로 만들고 싶다”며 “기다린 많은 분께 내 연기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하뉴는 전날 강릉아이스아레나 연습 링크에서 빙판 적응을 한 후, 이날 오전 메인링크에 처음 올라와 연습을 했다.

하뉴는 오는 17일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나서서 66년 만에 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첫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